

월간 **에닝양**  
8월호



### 문화수도 걸맞는 '문화 생태계' 구축됐다

싱글남녀 24시·김우창 교수 초대석 등 볼거리 가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프로젝트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내년 9월4일 전면 개관한다.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광주가 문화도시로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지만, 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했는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에닝양' 8월호에서는 특집으로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를 맞아 광주 문화예술계, 행정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꽃 피우는 광주의 미래를 그렸다. 기획으로는 최근 트렌드로 눈길을 모으고 있는 싱글족의 삶을 조명했다. 가족이라는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 '싱글녀', '싱글남', '돌싱녀'로 살아가는 이들의 24시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을 들여다봤다. 이들을 겨냥한 소비시장의 팽창, 가족관계의 변화 등 명암도 함께 다뤘다.

'예향 초대석' 손님은 '우리시대의 현자' 김우창 교령대 명예교수다. 김 교수로부터 세월호 참사, 군부대 총기난사 등 시대의 굵은 상처로 빛어지는 사회현상들에 대한 진단과 치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는 생명을 그리면서 사유하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화가 김병중 서울대 교수를 만났다.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 만난 장유정씨는 극작가, 영화감독, 작사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 예술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장씨의 독특한 튀는 삶의 얘기를 들었다.

'해의 문화기행'에서는 진화하는 소평전국 홍콩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와인의 본가 프랑스 보르도를 찾았다. '도시재생 문화에 물어봐'에서는 통영 동피랑 마을을 취재했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코너에서는 영국 바비칸 예술센터 예술감독 루이스 제프리스와 그리스 여행자로 또 다른 삶을 개척하고 있는 시골의사 박경철씨, 전성기를 열고 있는 기아타이거즈 안치홍을 만났다.

'남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대나무에 미래를 걸고 있는 담양을 찾았고, 스타데이트에서는 영화 '신의 한 수'에서 몰론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정우성을 인터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임원추천위, 광주문화재단 수장 선임 맡는다

재단 이사회서 위임 승인...이사회·시의회·시장 추천 7명 구성  
공고안·서류 심사·면접 방법 등 결정... 후보 2명 시장에 추천  
지역 문화계 "기금 확보 등 경영마인드 갖춘 인물 대표 맡아야"

8개월째 공석중이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무엇보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적임자가 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30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그동안 이사회 고유 권한이던 후보자 추천방식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승인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한다. 임원추천위는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한 공고안부터 서류 심사, 면접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천위는 이사회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광주시장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공무원의 제외시키고 시의회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임원추천위가 구성되면 공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20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거친다. 임원추천위가 서류심사나 면접 방법 등을 논의하겠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추가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면접심사까지 마치면 추천위원회가 최종 2명을 재단 이사장인 광주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문화계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재단기금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기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문화재단은 현재 87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2011년 출범 당시 80억원에서 7억여원 늘었을 뿐이다.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

서울문화재단 1253억원, 경기문화재단 1000억원, 인천문화재단 500억원 등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문화재단(280억원), 대구문화재단(217억



광주문화재단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고유 권한이던 대표이사 추천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임했다.

원)의 적립기금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적립기금 규모가 작다보니 이자수익으로 진행되는 자체 사업도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 설립 당시 적립기금 500억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4년이 다 된 현재까지 5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도 '월급쟁이가 아닌 재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특성을 감안해 기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동반 공석중인 사무처장에 대한 선임 절차는 대표이사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디지털 그림으로 교류하는 작가들

내일부터 시립산수도서관 갤러리



이권중 작 '안녕 서울'

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활동 중인 청년작가들이 디지털기기로 그린 신작을 선보이는 'D.P전(디피전)'이 8월 1~29일 광주 시립산수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 'D.P'은 디지털기기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일컫는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과 전시와 표현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디스플레이(Display)' 등 두 단어를 조합한 것.

순수 회화 작가뿐 아니라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전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보는 취지다.

전시에는 광주를 비롯해 전주,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11명이 참여한다. 김원·서완호·이권중·김준우·최창우·이동형(이상 전주씨, 이

상우·신보름·최진희(이상 익산)씨, 엄기준·이승호(이상 광주)씨는 모두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완호씨는 "디지털페인팅은 작업환경 마련에 필요한 막대한 시간이나 비용 없이도 작품제작이 용이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매력적인 재료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83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액션 화려해진 전우치 돌아왔다

광주시립극단 야외극 '전우치-홍련의 전설'  
31일~8월 2일... 8월 7일~9일 금남공원



광주시립극단의 '전우치-홍련의 전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운모)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전우치전'은 야외 공연의 재미를 전해준 작품이었다. 광주 금남공원에 무대를 마련하고, 계단 등 공원 곳곳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명랑교전원극을 표방한 전우치 시즌2 '전우치-홍련의 전설'이 지난 24일 첫 공연을 가졌다. 이번 작품은 고전 소설 전우치전과 장화홍련전을 섞어서 스토리를 짰다. 임금의 물건을 훔친 죄로 쫓기다 숲속에서 홍련을 만난 전우치가 의붓오빠와 계모에게 죽임을 당한 장화홍련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벌이는 한판 대결이 주 스토리다. 노래와 무용, 액션 등이 어우러지며 관객과 소통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즌1에 비해 강화된 액션이다. 특히 야외공연의 재미를 제대로 살려주는 플라잉 액션이 눈길을 끌었다. 작품의 시작과 끝, 빌딩 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배우의 모습에 절로 탄성이 터진다. 줄과 신체를 이용한 공연 예술을 선보여온 '장작 중심 단디'가 공동작업해 만들어진 장면들이다. '단디'는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도시행단프로젝트 중 전일빌딩 외벽에서 플라잉 연기를 펼쳤던 팀이다.

아크로바틱, 무용, 액션 등 트레이닝을 받은 김성관, 김수원 등 배우들의 움직임도 좋고 악역을 맡은 이명덕의 능청스런 연기도 눈에 띈다. 김지훈씨가 연출을 맡았다. 다소 느슨한 전개와 대본의 완성도가 떨어진 점은 아쉽다.

오영목씨가 작곡한 주제곡 '전우치'는 귀에 속 들어오는 멜로디로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 커튼콜 때 배우들이 선보이는 아크로바틱과 흥겨운 무대도 볼거리다.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기념촬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줘도 좋을듯하다.

31일~8월 2일, 8월 7일~9일 오후 8시 관객들을 만나다. 비가 올 경우 공연은 취소된다. 공연 전에는 하이트 맥주 무료 시음회도 즐길 수 있다.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 1899-0240

# 소파 식탁 보신판매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 가구빌딩